바야흐로 '세트피스 요원' 전성시대

K리그1 6년새 세트피스 득점비 최고치 경기당 0.35골
이기제·윤빛가람·강상우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활약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포인트 생산에 능한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들의 활약이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올 시즌 108경기를 소화한 현재 총 득점 대비 세트피스 득점 비율은 14.6%로 최근 6시즌 중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총 261골 중 108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터져 나왔으며, 경기당 0.35골의 세트피스 득점이 나왔다.

이기제(수원), 윤빛가람(울산), 강상우(포항) 등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들이 '세트피스 득점 바람'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즌 전반기 일정만 소화한 현재 직접 프리킥 득점과 프리킥 도움, 코너킥 도움을 더한 세트피스 공격 포인트 수치에서 이들은 나란히 4개씩을 기록 중이다.

2020시즌 공격포인트 최고 기록인 7개(강상우)의 절반 이상을 기록 중인 선수가 3명이나 되는 셈이다.

위치선정과 슈팅 타이밍이 좋은 '세트피스 전문 골잡이'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2020시즌 프리킥·코너킥 도움으로 최다 득점을 한 선수는 송민규다. 이 방식으로만 3골을 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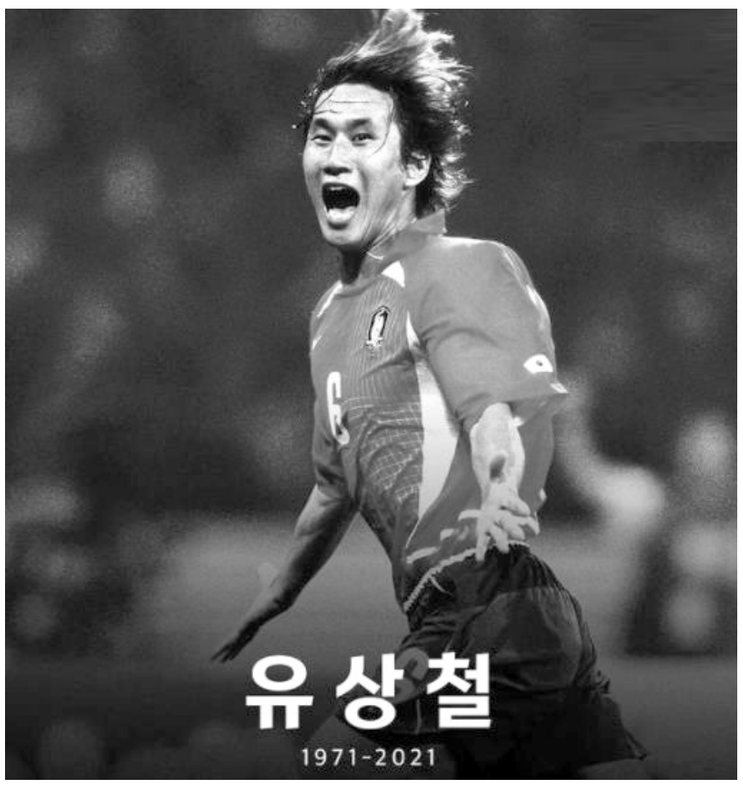
올 시즌에는 프리킥·코너킥 도움으로 벌써 3골을 넣은 선수가 송민규와 조유민 등 2명이나 된다.

송민규는 총 7골 중 3골을, 조유민은 총 4득점 중 3골을 코너킥 도움을 받아 넣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키(송민규 179㎝·조유민 182㎝)가 특출나게 크지는 않지만, 위치 선정과 슈팅 타이밍, 점프력이 좋은 선수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장신 선수인 뮬리치(203㎝·성남FC)와 라스(197㎝·수원FC)는 나란히 세트피스 골이 아직 없다. 이들은 8골씩을 기록 중이다.

김기동 감독은 지난달 30일 19라운드 광주FC전 뒤 "남다른 위치선정과 점프력이 송민규의 강점"이라고 칭찬했다. 연합뉴스



7일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세로 세상을 떠난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유상철. 연합뉴스

하늘의 별이 된 유상철

2002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투병 중 인천 1부 잔류 지휘

췌장암 투병 끝에 7일 오후 향년 50세에 세상을 떠난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은 성인 국가대표로만 124경기에 출전하며 한국 축구의 대표적인 멀티 플레이어로 이름을 날린 '레전드'다.

1994년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하고 그해 A매치에도 데뷔한 그는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재목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키 183㎝의 탄탄한 체구에서 비롯된 강철 체력은 물론 골 감각과 헤딩, 수비 능력 등을 두루 갖춰 필드 플레이어의 웬만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프로 첫해 수비수로 K리그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1998년엔 미드필더, 2002년엔 공격수로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단순히 뛰는 것을 넘어 훌륭히 소화했다. 1998년엔 K리그 득점왕(15골)까지 차지했다. 1998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3차전 동점골, 2002 한일 월드컵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 추가골 등 태극마크를 달고도 굵직한 득점들을 남겼다.

2001년 6월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멕시코를 상대로 후반 헤딩 결승골을 넣어 한국의 2-1 승리를 이끌었는데, 전반 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경합에서 코뼈가 부러진 가운데 풀타임을 소화한 게 뒤늦게 알려질 정도였다. 은퇴쯤엔 왼쪽 눈이 거의 실명된 상태로 선수 생활을 했다고 밝혀 또 한 번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2019년 5월 부임한 인천은 '축구인 유상철'이 몸담은 마지막 팀이 됐다.

최하위권을 맴돌던 인천의 1부 잔류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매 경기 살얼음판 같은 생존 경쟁을 치러야 했다. 시즌이 막바지이던 그해 10월 황달 증세로 입원한 유 전 감독은 11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구단 소셜 미디어로 직접 밝혔다.

인천은 2019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경남 FC와 비겨 10위를 확정하며 1부 잔류를 결정지었다. 유 전 감독은 명예감독으로 물러나 마음으로 인천을 응원하며 치료에 전념했다.

이후에도 유 전 감독은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이따금 모습을 드러냈고, 인천의 부진이 이어질 땐 '전격 복귀설'이 나올 정도로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은 듯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태가 악화했다는 보도에 반박을 내놓는 등 종종 근황을 전하곤했으나 끝내 그는 마지막 하나의 약속은 지키지 못한 채 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다. 연합뉴스

VNL에서 주목 받고 있는 여자배구 대표팀의 이소영. 연합뉴스

VNL도 주목… "자신감 올라왔다"

여자배구 대표팀 이소영
자신감·공격력 높이 평가

여자배구 대표팀 이소영(KGC인삼공사)의 성장을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VNL은 8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이소영이 자신감을 끌어올리면서 한국 대표팀의 시스템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소영을 집중 조명한 기사를 올렸다.

VNL은 "이소영은 생산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한국 대표팀을 지원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했다"며 "VNL에서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을 역동적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소영과 박정아(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선수들은 캡틴 김연경(중국 상하이)과 함께 많은 득점을 책임지며 대회 개막 이후 2주 동안 탁월한 재능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소영이 적극적으로 득점에 가담하면서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도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벨기에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2-3(25-23 23-25 16-25 25-19 12-15)으로 아쉽게 패한 경기에 주목했다.

VNL은 "한국이 막판 실수 몇 개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은 "우리는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해왔다"며 "벨기에는높은 블로킹을 가진 팀이어서 그 점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은 자신도 성장을 느끼고 있다. 그는 "득점을 몇 점 올리고 난 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그 이후로 세터에게 공을 더 많이 올려달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공격에 더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언맨 임성재 메이저 사냥 준비

PGA 팰머토 챔피언십 출전
US오픈 앞두고 감각 조율 나서

임성재(23·사진)가 메이저 사냥을 앞두고 새로 출범한 대회에 참가해 감각 조율에 나선다. 임성재는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콩가리 골프클럽(파71·7655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팰머토 챔피언십(총상금 730만달러)에 출전한다.

PGA 팰머토 챔피언십 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2년 연속으로 개최하지 못하는 RBC 캐나다오픈을 대체하기 위해 신설된 대회다. RBC 캐나다오픈은 2022년 캐나다 토론토를 무대로 PGA 투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US오픈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상위 랭커 선수들이 많다. 오는 18일 시작하는 메이저대회 US오픈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임성재는 팰머토 챔피언십에서 뛰는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다. 임성재는 유독 출전 경기 수가 많아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자 세계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미국)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메이저 2승(2016년 US오픈·2020년 마스터스)을 포함해 PGA 투어 24승을 기록 중이다.

세계랭킹 8위 브룩스 켑카(미국)는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켑카는 지난달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한 후 처음 대회에 나선다. 안병훈(30)과 강성훈(34)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에 도전한다. 교포 선수 제임스 한(미국)과 대니 리(뉴질랜드) 등도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2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1:50 한국의 인류유산(재) 11:55 숨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속아도 꿈결(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대박부동산(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1:45 이 맛에 산다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모르파티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애니갤러리 11:30 헬로카봇10 뱅 11:45 하니와 숲속친구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8:45 한글용사 아이야 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극한직업 14:10 EBS 다큐프라임 16:00 마사와 곰 16:30 딩동댕 유치원 17:45 역사놀이패 아리아리 19:50 가족이 맞습니다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뮤직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열린채널 15:10 다큐 온(재)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3:20 영상앨범 산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보토스 패밀리 15:30 TV 유치원 16:00 UHD 환경스페셜(재) 17:00 또봇V-우주수호대 17:15 쭝알쭝알 똘똘이 17:30 꿀잼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치치핑핑 시즌3 12: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13:20 꾸러기 식사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테마기행 길 스페셜	12:00 SBS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팔도강산 GoGo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전국 TOP10 가요쇼(재)	**제주 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업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속아도 꿈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국민의 힘 당대표 경선토론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TV는 사랑을 싣고 21:30 대박부동산 22:10 대박부동산 22:40 트롯 매직유랑단 1부 23:35 트롯 매직유랑단 2부 23:5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마녀들 시즌2 22:30 라디오스타 1부 23:30 라디오스타 2부	18:50 생방송 투데이 1부 19:20 생방송 투데이 2부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워밍업 1부 21:50 골 때리는 그녀들 워밍업 2부 22:30 백종원의 골목식당 1부 23:15 백종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8:00 로드맨 히트 더 로드 9:00 KCTV 뉴스 9:3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0:30 인터뷰 제주공감 13:30 KCTV 다큐스페셜 14:30 로드맨 히트 더 로드 15:30 UHD 제주산책 16:1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8:00 로드맨 히트 더 로드 19:00 KCTV 뉴스 20:0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20:50 UHD 제주산책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9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나보다는 남을 중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 **48년** 직장인은 인기가 있고 인정받는다. 미소를 환하게 웃어라. **60년** 중언과 간언을 구별하는 귀가 필요. 배반, 배신수가 따르니 행동에 신경써라. **72년** 관재구설이 우려된다. 건강 관리 철저. **84년** 취업이나 직장의 소식이 있으며, 이성이 다가온다.

37년 좋은 생각과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 긍정적 생각을 하라. **49년** 생각이 많으면 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니 잡념을 버려라. **61년** 집보다 외부활동이 필요하다. 구직자는 희소식이 오기도. **73년** 직장이나 결혼의 길한 소식이 오고, 기혼자는 부부간 오해가 생긴다. **85년** 오늘은 성실과 침착함이 필요.

38년 변화를 주고 싶고 활동욕구가 강한 날. **50년** 약속을 잘 이행하고 신용을 중시하라. 신뢰를 잃는 경우가 생긴다. **62년** 직장이나 업무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온다. **74년** 의욕과 충동성이 강하고 실천력이 있다. 결혼 운, 이성교제 길. **86년** 현실이 어려워도 실력만이 나를 인정. 자격, 면허가 절실히 필요하다.

39년 결단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면 소식이 온다. **51년** 혼자서는 해결이 안되니 가까이 있는 사람과 상의하라. **63년** 불필요한 것에 호기심이나 관심은 손재로 연결된다. **75년** 목표와 뜻이 좋아도 방법이 서툴면 만사가 엇갈림. **87년** 직업에 변화가 오거나 갈등이 오니 밖으로 활동하는 게 좋다.

40년 자녀 또는 친구로부터 근심되는 일로 소식을 받는다. **52년** 반가운 소식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있다. **64년** 명예가 있는 분은 초대 받을 일이 생긴다. **76년** 미혼자는 변화가 필요. 기혼자는 자녀 또는 기쁨이 찾아온다. **88년** 불투명한 오늘보다 계획있는 미래 설계가 필요.

41년 명예가 실추되거나 손상이 따르니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한다. **53년** 능력은 주위에서 인정해야 하는 법. 자신을 나타내기 보다 책임완수를 다하라. **65년** 취업 또는 직업이 생기는 소식을 접한다. **77년** 이성교제나 만남이 생기고 구매욕구 강함. **89년** 내가 가장 학습능률이 오르는 시간에 복습을 집중하라.

42년 일 진행이 안되면 아랫사람과 상의해 도움을 받아야 좋다. **54년** 문서 이동 또는 외출할 일이 만들어진다. **66년** 실언 또는 말로 인한 구설을 조심하며 북쪽은 흉하다. **78년**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시간 필요. **90년** 가벼운 운동과 산책으로 건강관리에 충실.

43년 화를 내면 하루가 힘드니 마음을 비워라. **55년** 돈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다. 대인관계의 폭이 넓으면 좋다. **67년** 힘에 부치는 일은 주변인에게 협조를 구하라. 과로는 만병의 원인. **79년**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에 약하니 끝까지 신경써야 한다. **91년**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44년 영업에 이익이 있기도 하지만 변화를 주려는 사람도 많다. **56년** 충동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충분한 생각 후 결단이 필요하다. **68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나 다툼이 오가니 금전거래 시 자제나 보류. **80년** 부모님이나 윗분으로 인한 자금 지출을 하게 된다. **92년** 큰소리가 오갈 수 있다. 감정 자제.

45년 시비, 구설이 오니 앞장서는 일은 신중하게. **57년** 순리에 따르면 일이 풀린다. 무리수를 두지마라. **69년** 남에게 베풀거나 나눔을 줄 일이 생긴다. 나를 필요하는 곳이 있다고 희망을 가질 것. **81년** 이성교제가 생기나 내 자신은 준비가 부족하다. **93년** 당장 결실이나 재물이 모이지 않아도 서서히 회복한다.

46년 갈 곳이 많고 재물 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58년** 동업이나 투자문제로 주변 또는 친구와 의견을 나눠 볼 것. **70년** 가정에서는 불화나 근심수가 있다. **82년** 새로운 일이나 직장문제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한다. 주변에 지혜를 얻어라. **94년**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다. 무리 하지 말 것.

47년 문서나 매매는 길하고 전문업에서 수익 증가. **59년** 동업이나 협력의 일이 생기고 기쁨이 온다. 투자 투기는 금물. **71년** 실천하려 하나 몸이 따르지 않고 마음만 급하다. **83년** 이성 또는 애정 관계로 망신수가 생기니 남녀관계는 신중함과 냉철한 판단 필요. **95년** 급하면 불화만 오니 느긋한 여유가 필요.